

눈길 닿는 것은 모두 부처님이 들고 계신 연꽃



15 남원 실상사(實相寺)

해탈교를 건너자 돌장승이 눈을 맞춘다. 속세를 드나들 것 같지 않은 산세의 울음소리나, 태고의 그늘이 숨 쉬고 있을 것 같은 오솔길은 없다. 무릎을 세우고 올라야 할 돌계단 대신 곡식이 들어찬 들과 연잎 가득한 연못을 지난다. 남원의 실상사로 가는 길이다.

그 옛날, 영산에서 범왕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올리자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셨다. 대중은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었다. 문자를 버리고, 뜻 없는 뜻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던 그 날, 선종은 시작됐다.

구산선문의 최초 가람인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 흥척 스님이 당나라에서 선법을 배우고 돌아와 세운 절이다. 신라불교에 선풍(禪風)을 일으키며 변창했

던 실상사는 조선 때 화재로 전소됐다가 3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또한 한국전쟁 때는 국군과 북한군이 번갈아 점거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는데 다행히 절은 화를 입지 않았다.

보광전 추녀에 벗어놓은 매미 허물이 들려오는 제 울음소리에 마음을 비우고, 극락전 연못 속에서 잠을 깬 개구리 한 마리는 조심조심 세상 밖을 내다본다. 부처님 가까이 사는 건 날마다 부처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가 아니었다. 단 며칠을 울다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매미와 연못 밖에 모르는 개구리가 부처님 가까이 살고 있었다. 법당에서 몸을 이룬 매미와 매일 극락에서 잠을 깨는 개구리. 사람 몸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간절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끼리나 하는 말인 듯싶다.

그 옛날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셨던 것처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상사에 가 볼 일이다. 법당 추녀에 벗어놓은 텅 빈 매미의 몸과 극락에서 잠을 깬 개구리의 눈을 보고 있으면 눈 닿는 것은 모두 실망이고, 눈 닿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연꽃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실상사 전경

배부른 돼지나라, 천(賤)한 나라, 낫빠진 나라, 불쌍하고 불행한 대한민국!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책을 읽을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있었으면....

세계일등 도덕 강국과 세계일등 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국민상 정립(國民像 定立)

중심이 없는 국민사회가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우리의 국민두뇌가 <최고>의 자리로 인정(책자 1장 65면) 받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인정적 특장(人情的 特長)이 <최고도>의 업무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정밀실험의 결과와 증거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검증(책자1장 57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부(天賦)의 자질을 <일등나라의 창조>를 가능케 할 유력한 척도가 되며 '일등나라의 모습이 곧 우리다움'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인식을 촉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최고'가 '최고'가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일인당 국민소득(GNP)이 OECD국가(33개국)의 평균치(3만달러)에도 못미쳐 십수년째 2만달러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타고난 '최고'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지는 이미 20년에 가까운데(한계에 봉착) 아직도 그 문턱 밑을 맴돌며 그 지나간 세월간에 몇푼이나 건진다고 무슨 큰 대희나 있으면 눈이 벌개 유지하느라고 장 세월을 국력을 쏟아붓는 등 각종 합리화된 모리정치 놀이에 국민의 뒀을 팔아 왔으며 실속없는 국민들은 배부른 돼지들이 되어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최고'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방해하는 우리의 국민풍토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살면 손해'라는 역리(逆理)에 익숙해진 국민들, 드러나지 않는 비리(非理)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국민상(OECD 국가 중 반부패지수 최하위)이 나라의 일등 국격을, 일등 희망을, 일등의 최선을 결코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천부의 잠재력, 최고의 두뇌력과 최고의 인정력(人情力)을 최대(완벽) 적용하는 학교교육(경교육)실전에 의해

<자율도덕력을 완성>하여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밝힘- 특히 27면 ~ 36면의 교실교육 실화에서 방도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음) 이와함께 최고의 교육을 위한 병행 조건으로서 국민상(國民像)을 교육하는 문제는 시급합니다.

국민의 정통가치관(국민상-한국사의 대동맥을 상징하고 국가의 척추가 될 기본 가치관), 즉, 국민의 중심상(기준척도)을 정립함으로써 이 나라의 오염된 온갖 선한 가치관들이 오용의 탈을 벗고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며 좌파, 우파 등 분단과 대립상을 창조해온 정치 주도의 가치관 유린시대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자에서 자세히 논함)

이제 세계경제, 과학문명을 제패하는 창의력과 일등 복지사회의 모범을 함께 일으키게 할 우리의 위대한 국민상(國民像)이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속에 잠자고 있음을 깨우쳐야 할 필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어 소승은 신분의 틀을 넘어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완성을 통한 국민상 정립을 완성하는 공사(公事)에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며 사람에겐 교육의 문제가 우선합니다. 사회는 교육의 소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교육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국민이 장차 크게 아플것입니다. 일등민주를 요구하는 일등 국민두뇌의 불만은 깊어지고 중심(中心)없는 비도(非道)의 국심(國心)은 배신의 그늘에 안주하여 마침내 우리는 혼돈의 나라에서 대망(大望)의 확신을 잃은 국운을 분노와 후회의 시선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창의(創意)가 세계의 국민 정신문화와 세계의 경제, 과학 문명을 선도(先導) 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절망에 빠진 우국(憂國)의 교육지사(教育志士-교육에 뜻을 둔 각계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삼가 소승의 학교교육 현장 경험에서 얻은

치열한 번뇌로 쓴 책자 '無門에 피는 꽃'(학교교육 혁명서)은 세계 일등국을 실현하는 국민교육의 정도(正道)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속에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학교교육에 뜻을 둔, 원하시는 국민 부처님들께 무상(무료 = 택배비 포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大韓沙門 慧岩 合掌

기도처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95-13(호병골길 2번지) 정혜사
전 화 : 031) 536-1010, 휴대폰 : 010-4327-2134



• 제목 : 無門에 피는 꽃
• 저자 : 慧岩 (俗名 : 吉炳德)
• 규격 : 26cm x 19cm, 총 270면, 비매품
• 정규고등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교실에서 시작되는 교육 혁명서입니다.

• 최고의 교육은 최고의 시설에 있지 않으며 그 생명력은 최고의 교육내용에 있습니다. 국민상 교육(國民像教育)의 토대위에 자율도덕력의 완성과 창의 학습력의 최상화를 실현하는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를 설립하십시오(설립이사장, 설립이사, 설립추진위원, 설립후원사, 설립후원회원)를 구하는 광고입니다.

소승의 역할은 설립이후(3년 이내에 최고의 교육성과를 거두는 책임)이 전부입니다. (책자 내용 참조)